

사회

10년째 강의에 빛만 1000만원

대학 시간강사 비관 자살 ... 부인 식당일로 생활비 충당

“세상이 밍다, 대학사회 증오스럽다” 유서

10년째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씨(45)씨에게 교수임용의 벽은 너무 높았다. 또 시간강사의 저임금으로는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버겁기만 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서씨는 매주 10시간씩 강의를 하며 한 달 140여 만원을 받았고, 명절 때도 연구에 매진하면서 50원이 넘는 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교수의 꿈은 갈수록 멀어졌고, 부인이 매일 10시간 이상 식당 일까지 했으나 생활고는 계속됐다. 결국 이 시간강사는 ‘시간강사들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라는 절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씨는 가족과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숨지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5매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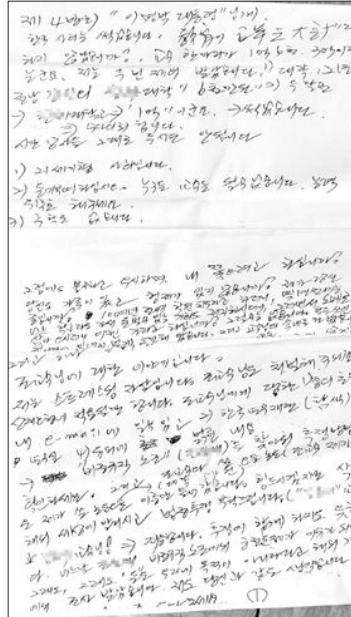
서씨는 유서에서 부인에게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언젠가

교수가 되는 그날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용서받고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또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왜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중의 가치가 없으니 버리려고 하십니까?”라며 “세상이 밍습니다. 한국의 대학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유서에서 그는 함께 논문을 작성해온 세미나 팀원들에게 “나의 자존심, 노예로서의 충성심도 사라진 지금 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

서씨는 지난 1993년 서울의 한 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지난 1997년과 2002년에 각각 영어영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4~5년 전 대구지역 두 대학 교수 공채에 지원했지만 탈



서씨가 남긴 유서. A4용지 5장에 고단한 삶과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적고 있다.

락해 시간당 3만4000원의 강사로 받아가며 버텨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씨가 최근까지 근무한 대학의 영어영문학과가 지난해 1학기

‘통사론’전공 교수 1명을 채용했으나 ‘음운론’을 전공한 서씨는 지원하지 못하는 등 교수 채용과정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서씨의 부인(45)은 “논문 스트레소 수 년 전부터 차가 모두 빠져 들리를 할 정도로 연구만 해온 사람”이라며 “최근 밍었던 교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교수로 데려온다고 하자 매우 상심하고 배신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서씨의 부인은 서씨가 시간강사를 시작한 10년 전부터 하루에 10시간 이상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들(24)과 딸(20)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린 서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약 66.11㎡(20평)크기의 아파트를 담보로 1000만원의 은행 빚까지 지고 있었다.

서씨의 자살 소식을 들은 한 교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연구에 매진하는 훌륭한 친구였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 했다.

/김초희기자 kimho@kwangju.co.kr



“교통질서 지켜주세요”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가 실시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교통질서 준수를 촉구하는 노란 풍선을 흔들며 북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교조 교사 징계 갈등

교과부 “6월 1일까지 직위해제” 시·도교육청 통보

전교조 “선거용 부당 징계 좌시 않겠다”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하기로 한 광주·전남 5명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공립 교사 134명 전원을 6월 1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복수의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징계 대상 교사들을 가급적 6월1일 자로 맞춰 직위해제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한 지방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직위해제는 기소되거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상 조치”라며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감사 담당관은 “6월1일자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인사조치를 빨리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성급한 직위해제 조치로 징계 대상 교사들이 소명 기회를 얻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만큼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될 처지에 놓인 소속 조합원 134명 중 98명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공개한 회견문에서 “(134명 중)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교사가 9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을 떠난 지 3년6개월이 지난 교사와 단돈 2만원을 후원한 교사, 기소유예된 교사까지 징계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의 파면·해임 대상 공립 학교 교사는 3명이며, 전남은 2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나원침 (8031) 김중두



여성 속옷 훔친 3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청은 26일 도심 주택가 빈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지적장애 3급 정모(37)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이모(여·44)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한 장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6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리 요금 비싸다” 운전 자 뺄 때려

○대리운전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대리 운전기사의 뺨을 때린 20대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청은 26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 S도서관 앞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 박모(여·50·북구 중흥동)씨가 대리비 1만 5000원을 요구하자 박씨의 오른쪽 뺨을 한 차례 때린 정모(29·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결과 상무지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정씨는 귀가를 위해 부른 대리기사 박씨가 1만 5000원을 요구하자 “광주 시내 대리운전 요금이 1만원 아니냐”고 따지다가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전남 시간강사 1500여명 ... 평균 월급 70만원

광주·전남지역 시간강사 수는 대략 1500명이지만 대부분 저임금과 불안한 신분에 놓여 있다.

강의료는 한 시간당 3만5500원(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기준)이다.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과목(일주일 3시간 강의)을 맡은 강사는 월급여가 50만원 안팎이며,

대다수가 두 과목 정도를 강의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전국적으로 7만2000여명에 달하며, 상당수 사립대들은 전임교원 총원보다는 저임금의 시간강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세 과목 이상을 강의하며

15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며 강의하는 경우는 비용 때문에 수업에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시간강사들은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그나마 방학기간 4개월을 빼고 나면 평균 월급은 70만원도 채 못되는 셈이다. 이 때

문에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학원 강의는 물론 대리운전 등 생계를 잇기 위한 다양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 및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 6년(석·박사 학위) 이상을 연구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연구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과 도서관을 전전하며 수업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순천 낙안읍성·송광사·선암사 주변 음식점

수입산 먹을거리 국내산 둔갑 판매로 폭리

순천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낙안읍성을 비롯해 송광사, 선암사 주변 일부 음식점들이 수입산 먹을거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출장

소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순천지역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36곳을 점검한 결과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비싼 가격에 팔아온 업소 10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순천 S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

살로 조리한 ‘삼합’을 국내산으로, 수입 쇠고기로 조리한 ‘떡갈비·구절판’ 등 메뉴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정식 1세트에 3만 5000~5만원씩 1180세트(4700만원 상당)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순천시 승주읍 A음식점은 칠레·헝가리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구이용 삼겹살로 조리한 후 국내산 생삼겹살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뒤 1인분(200g)에 8000원씩 800kg(4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광주시 1억1700만원 지급” 판결

광주시의 일방적인 임용 철회로 승진에서 누락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6일 정운채(61)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정 전 국장에게 1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성 승진 취소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점에 비해 볼 때 광주시는 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3월 정씨를 3급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발령했으나, 비엔날레 이사장 등의 요구에 따라 정씨에 대해 파견복귀를 명하고 그해 7월 말 승진임용 계획을 철회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승진 분쟁’ 정운채씨 손배소도 승소

광주시의 일방적인 임용 철회로 승진에서 누락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6일 정운채(61)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인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정 전 국장에게 1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 > 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문법영어 편입을 위한 어휘(문법)지 논리(독해) 문법(문법) 학습하는 기법
	문제풀이 확장반	편입영어 학습에 대한 4차 논리(독해) 문법(문법) 문제풀이 기법
편입수학	미적분학	편입수학에 대한 5차 학습방법과 그에 대한 논리를 연습하는 기법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1 222-8088, 227-8088